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 본격적인 폭염 시작에 따라 다음 주부터 연안 수온 상승 예상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이번 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향후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심이 얕은 연안부터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7월 26일(수) 14시부터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하였다.

* 2022년까지는 관심단계로 명명하였으나, 위기경보 체계의 '관심' 단계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예비주의보'로 명칭 변경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 현재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7. 6.), 제주연안(7. 21.)에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효 중

수과원은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가 작년*보다 20여 일 늦어졌지만, 다음 주부터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022년 고수온 진행 경과: (예비) 7. 4. → (주의보) 7. 6. → (경보) 8. 3. → (해제)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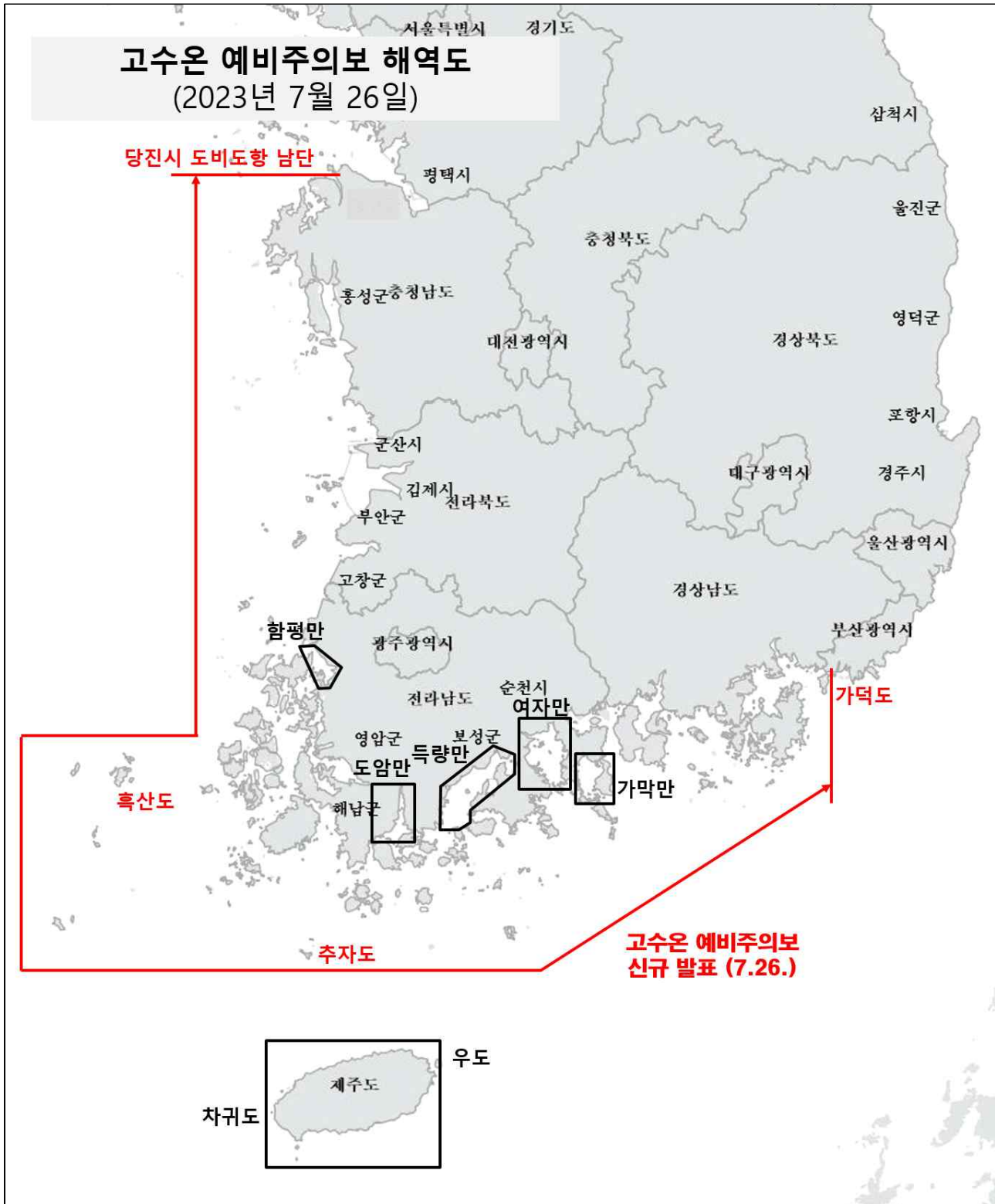
7월 26일 현재, 연안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3℃ 낮은 수준이지만, 연근해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0.5℃ 높은 상황이다.

* 주요 연안 수온(7월 26일 0~12시 평균) : 가로림만(23.8℃), 천수만(25.4℃), 군산 비안도(25.0℃), 진해 잠도(26.8℃)

한인성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물과학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담당 부서 <총괄>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	구	관
			연	구	관
			연	구	사
			연	구	사
			연	구	사
			연	구	사



특보	시기	어업인 어장관리요령
평 상 시 (24℃ 이하)	5~6월	○ 어린고기 입식시 밀도기준 준수, 입식 ○ 피해어장 고수온 취약품종 입식 자제 및 대체어종 입식 ○ 조기 출하 및 사전 분산(분망)으로 사육밀도 조절 ○ 대응장비 보강 및 수리 등 가동 준비태세 완료
고 수 온 예비주의보 (25~27℃)	7월	○ 양질의 먹이,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어체활력 강화 ○ 어류질병 사전예방 및 약제투여에 의한 치료 완료 ○ 가두리 그물 도색, 교체 및 청소 ○ 차광막 시설 및 가두리 그물 침하시설 사전 준비·점검
고 수 온 주 의 보 (28℃ 도달)	8월	○ 수온·용존산소 모니터링 등 자기 어장 점검 ○ 양식생물 동태 파악 점검으로 대응조치 적극 이행 ○ 사료공급 중단 ○ 대응장비 총력 가동 - 액화산소공급장치, 저층해수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에어컴프레서 등 ○ 차광막 설치 및 가두리 그물 침하
고 수 온 경 보 (수온 28℃ 3일 이상)	8월	○ 수온·용존산소 모니터링 등 자기 어장 점검 ○ 양식생물 동태 파악 점검으로 대응조치 적극 이행 ○ 사료공급 중단 ○ 대응장비 총력 가동 - 액화산소공급장치, 저층해수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에어컴프레서 등 ○ 차광막 설치 및 가두리 그물 침하
고 수 온 특보해제 (27℃ 이하)	9월 이후	○ 고수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양질의 사료 공급(공급량 조절) ○ 어체약화로 인한 질병발생 우려, 어류질병 관리 강화 ○ 어체 안정화 및 산소 보강을 위한 액화산소 공급